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어린이 주일

오늘(5.3) 오전 11시 예배는 어린이주일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대 표 기 도 : 이재우 어린이
특 별 찬 송 : 교회학교 어린이 및 교사(보조교사 함께)
모범 어린이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어린이

3. 아버지 주일

다음주일(5.10) 오전 11시 예배는 아버지주일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대 표 기 도 : 한은총 학생
특 별 찬 송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머니 마음)
오 후 애 찬 : 부모님 초청 삼겹살 파티

4. 구역예배

일시 : 2026년 5월 7일(목) 오후 4시
장소 : 임명순 사모 (권선구 수원천로 63, 무한홈타운 다동 402호)

5. 청소년 예배 시간 변경

청소년예배 예배시간을 매주 토요일 저녁 6:00로 변경합니다.

6. 2026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15 ~ 4.15)

5.25(월) 문재효 형제 5.27(수) 임명자 집사(4.11) 5.28(목) 박수진 자매

가정과 사랑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5/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
05/03	어린이 주일 (모범어린이 시상)
05/10	아버지 주일 (아버지 감사 꽃 삼겹살 파티)
05/11	북한선교위원회 제14회 정기총회
05/12	교회어르신 위로 모임
	아하브코업 홈스쿨 5월 정기모임
05/14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날
05/17	스승의 주일
05/24	부부 주일 / 가정의 주일
	성경강림주일 / 성결교회주일
05/26	아하브코업 홈스쿨 5월 정기모임
05/30	삼위일체주일 / 선교한신예배
06/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정자동(10:00) ▶화서동(10:10) ▶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정자동(13:40) ▶화서동(13:50) ▶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 요 구 역 예 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5/03	이재우 어린이
05/10	한은총 자매
05/17	박제연 집사
05/24	이광근 안수녀
05/31	임명자 집사
06/07	임명숙 집사
06/14	김혜숙 권사
06/21	정현숙 권사
06/28	박제연 집사



주사랑 9권 18호 | 2026년 5월 3일
창립 2017.11.25 | 부활 후 다섯 번째 주일 / 어린이주일
기 독 교 주사랑교회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05월 2026년

가정과 설김의 달

2026표어 :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 힘을 얻는 교회
(이사야 40:31)

1일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3일 어린이 주일 [모범어린이상]
10일 아버지 주일 / 삼겹살파티 / 탑동평안교회 통합감사예배
11일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제14회 정기 총회
12일 교회 어르신 위로 모임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14일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날
15일 교회 어르신 가정 위로 심방
17일 스승의 주일
24일 부부 주일 / 가정의 주일
26일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31일 삼위일체주일 / 선교한신예배

이름 :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디모데전서 3:4~5]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어린이 주일) 인도: 한승훈 담임

- ※ 목 도 신명기 31:11~13 인 도 자
- ※ 송영찬송 찬 565장 다 같 이
(예수께로 가면)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No.96 어린이주일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570장 다 같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대표기도 이재우 어린이
(교회학교어린이 대표)
- ※ 성경봉독 요한복음 6:5~13(신 152) 이재우 어린이
- 특 송 야곱의 축복 교회학교일동
(파노: 한은총 자매)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세상을 삼는 주의 어린이 담임 목사
- 봉헌찬송 찬 563장 다 같 이
(오병이어현신 : 이재희 어린이)
-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일에 작전 드립니다 / 입금: 2026.05.02. AM 6:00 기보)

- 십 일 조 : 김혜숙 아가를 장사라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하락 / 강민경
- 주정현금 : 김혜숙 박제현 이광근 이다남 오동영 임명순 임명순 정현숙 한승훈 한하락
- 감사헌금 : 이광근 박제현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한창수 오경자 아하브코업홈스쿨 오동영 임명순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은총 한성결 한태민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현 임명순
- 선교헌금 : 김혜숙 한승훈 임명순 / 신정인
- 전도헌금 : 장사라(이옥성 장제규 장제경 최란희 장연우 장지우 장은비)
- 후원헌금 : 오복상 방애경 소망제광교회 안양중앙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 일 오 후 예 배

- 오후 1:30 한승훈 목사
- 대표기도 말 은 이
- 성경봉독 마가복음 12:41~44 (신 77)
- 말씀제목 과부의 두 렵돈 마음의 중심
-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 요 저녁예배

- 오후 7:30 (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 성경봉독 로마서 3:23-24 (신 243)
- 말씀제목 조직신학: 인류의 타락(죄관2)

목 요 구역예배

- 오후 15:00 말 은 이
- 성경봉독 열왕기하 19:20-37 (구 597)
- 대표기도 말 은 이
- 말씀제목 믿음의 간구와 공활의 응답

금 요 심야기도

- 오후 7:30 한승훈 목사
- 성경봉독 요한복음 14:1~14 (신 172)
- 말씀제목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

새벽 기도회(월~금)

- 새벽 5:30 사무엘상 묵상
- 5/3일(일) 막 12:41-44 과부의 두 렵돈
- 4일(월) 삼상 3:1-9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 5일(화) 삼상 3:10-14 주의 마음을 나누는 자
- 6일(수) 삼상 3:15-21 말씀을 자기를 나태심
- 7일(목) 삼상 4:1-11 안개를 빼앗김
- 8일(금) 삼상 4:12-18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⑥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빌 1:20~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⑦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빌 2:2~4)

()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⑧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나요? (빌 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⑨ 사도 바울은 성도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나요?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을 이루라

⑩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도리어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빌 3:8~9)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를 얻고 그 안에서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보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사전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국내선교(오주교우회소속)



해외선교(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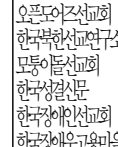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나루교회)



기타 기관 선교



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권면하나요?

(엡 4:22~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와 ()의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② 사도 바울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써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당부하나요?(엡 5:8~9)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과 ()과 ()에 있느니라

③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엡 6:11~13)

()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④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엡 6:14~17)

그 그런즉 서서 ()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을 가지라

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빌 1:3~5)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⑥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와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한다고 했나요? (엡 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5월의 북한중보기도 -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속 8:3~7)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땅과 열방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① 오랫동안 억압과 공포, 우상과 사상에 묶여 있는 북한 땅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소서.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북한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땅이 되게 하셔서, '동방의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 '회개와 부흥의 터전'라는 거룩한 명성을 회복시켜 주소서(속 8:3).

② 사방에 흩어진 탈북민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으로 모아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주소서. 남북으로 나뉘어 눈물 흘리는 이산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선교통일의 비전'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켜 주셔서, 북한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속 8:7).

③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체사상과 인본주의, 거짓된 이념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소서(속 8:3, 고후 10:4~5).

④ 사람의 눈에는 북한 복음화와 통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닫혀진 국경과 정치적 긴장,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민주평화통일 그리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속 8:6).

⑤ 북한의 5월 1일은 '국제노동절'로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강제 동원과 희생을 요구하는 모든 불의한 구조가 무너지게 하소서. 노동이 더 이상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존엄한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노동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소서. 굶주림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주소서.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노동의 참된 성서적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통일 이후 북한 사회가 복음적 노동관 위에 재건되어, 노동을 통한 삶의 예배와 섬김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 진행	인	도	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	이	750	남유다 요담의 등극	왕하 15:32~38	
찬 송 가		찬 369장	다	같	이	735	남유다 아하스의 등극	왕하 16:1~20
대표기도		말	은	이	732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하 17:1~4	
성경봉독		왕하 19:20~37	윤	독	722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유	왕하 17:5~23	
말씀인도		민명의 관과 공회와 왕	말	은	이	720	사마리아의 앗수르 이주민들	왕하 17:24~41
합심기도		다	같	이	715	남유다 히스기야의 등극	왕하 18:1~16	
헌금기도		찬 212장	말	은	이	701	산헤립에 의한 앗수르의 3차 침공	왕하 18:17~37
주기도문		다	같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왕하 19:1~19	

■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앗수르 산헤립 왕의 침략 앞에서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자기 주권적인 뜻 안에서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산헤립과 앗수르의 군대를 심판하셨고, 남유다 왕국에게는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만한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20~28), 겸비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29~34), 그리고 앗수르의 패배와 산헤립의 죽음(35~37)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앗수르가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태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대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두 왕국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첫째,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응수입니다(20~28).

하나님은 산헤립의 영적 무지와 교만을 책망하십니다(21~26). 무력한 유다 백성이 산헤립을 비웃고 기가 차서 머리를 흔든 것은 주객이 전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산헤립이 비방하고 소리를 높이고 눈을 치켜뜨고 본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22). 하나님은 하룻강아지만도 못한 산헤립의 자화자찬과 교만을 비웃으십니다(23~24). 산헤립은 많은 병거를 이끌고 험난한 여러 민족의 땅을 점령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오르기 힘든 여러 산꼭대기를 정복했고, 레바논 깊은 숲의 명물인 높은 백향목과 이름다운 잣나무를 베었습니다. 앗수르 왕들의 비문에는 니느웨의 궁궐 건축에 쓸 목재를 공급하려고 여러 왕들을 처단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산헤립의 원정 범위는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먼 곳, 레바논의 무성한 수풀 속까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방 땅들을 파서 물을 마시고, 이집트를 누비며 강들을 말렸다는 것은 수로 차단 전략을 가리킵니다. 산헤립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어냈다고 자기 착각에 빠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25~26). 이제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27~28). 하나님은 산헤립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산헤립의 악행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산헤립의 멸망은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입니다. 산헤립의 패배와 굴욕은 앗수르 왕에게 사로잡힌 포로들의 모습으로 되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고리를 산헤립의 코에 꿰어 재갈을 물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주제넘은 분노와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상태에서 그가 뱉을 수 있었던 모든 말들과 장담하며 내뱉은 모든 말들은 허튼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로 반응하시고, 악인의 교만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응징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힘의 원리가 지배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 변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황을 뒤엎을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기도 에 대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29~34).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유다를 구원하는 징조로 ‘땅’과 ‘남은 자’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29~31). 백성들은 금년과 내년에는 경작하지 않고 밭에서 저절로 나는 식물을 먹게 될 것이며, 제3년에는 과중하여 열매를 거둬 먹을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많은 성읍이 정복되고 땅이 황폐했으며, 땅이 제3년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안식년과 화년의 땅으로 비유됩니다(레 25장). 제1, 2년에 밭에서 난 식물은 굶주림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이어 나오는 ‘남은 자’의 회복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한 간구(4)에 대한 응답입니다. ‘남은 자’나 ‘피하는 자’는 앗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황폐된 땅에서도 아래로는 뿌리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식물의 비유는 산헤립의 공격에 처참하게 밟혀 말라버린 다른 민족과 극명한 대조입니다(26).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남은 자들이 나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신뢰할 것을 암시합니다(사 10:20~22).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32~33).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여호와와 선언이시라’로 끝납니다. 이는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암시합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할 것이며, 성을 향해 화살을 날리거나, 방패를 들고 다니거나, 공격을 위해 토성조차도 쌓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는 왔던 길로 퇴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구원하옵소서”에 대한 응답입니다(19).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홀로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15, 19). 또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존속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실 궁극적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앗수르의 패배와 산헤립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35~37).

하나님은 이사야(사 37:36~38)와 히스기야의 기도(대하 32:20~23)를 듣고,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를 앗수르 진영에 보내, 군사 185,000명을 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두 송장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실현되었습니다(34). 이로써 남유다 왕국은 앗수르의 심판 이후에 구원을 경험하고, 앗수르는 잠깐의 승리 후에 영원한 파멸을 경험합니다. 앗수르의 침공으로 남유다 지역은 3년간 혹독한 시절을 보내게 되겠지만, 피하고 남은 자가 반드시 그 회복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앗수르가 예루살렘 성까지 넘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영원한 군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합니다.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합니다.